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615호 현대불교
2007년 2월 14일(음력 12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그냥 꾸준히 뚜벅뚜벅 물 흐르듯이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 이거를 잘 음미해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때 피곤할 때는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죠, 이 안에서, 몸이 피곤하면 '아휴!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해?' 하고 알게 해주죠. 또 피곤하면 '아! 조금 쉬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아픈가가 즐겁게 해줍니까? 그렇게 '내가 피곤하지!' 그러면 벌써 알게끔 해서, '좀 쉬어야지!' 하고, 쉬게끔 마음이 들게 하고, '아휴, 좀 개운한데!' 하게끔 만들고, 그러고서 또 피곤하면 '목욕 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하고, 일일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건건이 자기를 생각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입니다. 참자기 주인공인데 이름을 주인공이라고 붙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자연의 섭리로서 그렇다면, 누구한테나 마음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 마음은 하나지만 마음내는 건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응! 마음은 하나야. 그러나 마음내는 건 수억, 우주 삼라대천세계에 폭발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뱀도 내가 될 수 있고, 개구리도 내가 될 수 있고, 새도 내가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내가 될 수 있고 모두가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하다, 위대하지 않다'라는 말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순간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될까 하는 생각에서, '모든 걸 보라, 보라!' 이겁니다. 놓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사는 자체가 다 바로 그놈이 하는 거라고 믿고 놓아야 합니다. 만약 그놈인을 믿지 않고 그놈한테 다 맡겨 놓지 않는다면 그놈은 절대 나오질 않아. 회사에서도 어느 믿을 만한 직원한테다 딱 맡기면 도둑질도 못해,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해요. 그런데 맡기지 않으면 그게 참 나오려고도 안 해요. 왜? 막아져 있으니까, 제 잡났다고 딱 하니 자기가 위로 올라왔었으니, 참 자기는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자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한테 머리 숙여 숭배해야 해요. 자기 조상이니까, 자기 아버라고, 겸손하게 보필하면서 자기는 믿어야 된다 이거야, 마음적으로. 그래서 믿어서 그것이 완전히 돌이 아니었을 때에, 아버가 자식이고 자식이 아버이고 말이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아버지 그냥 아버지, 왜 아버지 자식이고 자식이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불이법(不二法)

이 그러하다는 얘깁니다.

그건 왜? 그렇지 않으면 연속해서 길이 될 수가 없거든. 즉 예를 들어서 높은 일도 있고 낮은 일도 있고 아주 하(下)의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자식이 없다면, 이걸 뭐 진리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일도 그렇고, 모든 게 삼위일체로서 돌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이러한 법은, 즉 말하자면 아버지가 일을 할 때는 아들이 아버지로 돼주고, 아들이 일 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로 하나가 돼주고, 아버지와 아들이 돌이 필치언정 결국 하나다 이겁니다. 뱀이 일할 때는 스님도 뱀이 돼버리고 또 스님이 일할 땐 뱀이 바로 스님이 돼버리고, 사자가 스님이 돼버리고 스님이 사자가 돼버리고, 코끼리가 사람이 돼버리고 사람이 코끼리가 돼버리고, 그게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이 수천수만 가지로 생각을 낼 수 있으니 그 모습조차도 바뀌지더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거듭거듭 거쳐 나오면서 모습을 바꿔가지고 나온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자연의 섭리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의 이 토대가 바로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모두들 지수화풍이 허무하다고 그러지만, 지금 지수화풍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지수화풍이 없으면 지금 우리 썩어도 아니, 생겨나지도 못했죠.

지금 다른 혹성에도 이런 게 있죠. 우리 지구에도 그렇지만 법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구에도 망사처럼 이렇게 큰 틀레로 돼 있는 법망이 있습니다. 그 법망으로 인해서 전체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바깥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있다는 얘깁니다. 즉 말하자면 핏줄처럼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어디로 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법망이 보이지 않는 데 법망이거든요. 조금이나마 바깥으로 표현된 것도 천체망원경으로 봤기 때문에 표현된 거지 육안으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우

리가 현세에 이렇게라도 볼 수 있게끔 나온 것이 어찌 과학이 아니겠느냐는 얘깁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자체 속에서 본자에 의해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의해서 진화가 되고, 이렇게 자꾸자꾸 나뉘면서 우리는 지금 한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빛을 발하면서 활발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돌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생각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것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돌고 있는지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것에도 애

고 남을 줄 줄 안다면, 그것은 자기 죽는 거, 이 옷 벗는 거를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자리 저 자리를 육신으로 다니며 하려면 그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몇 안 되고,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또는 대포를 가지고 해도 싸움이 됐지만, 지금은 안됩니다. 시대가 시대만큼 큰 사람도 많이 생겼을 뿐 아니라, 사람의 머리도 그만큼 깨었고, 그만큼 과학적으로 발달이 됐고, 문명이나 모든 걸로 봐서는 지금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죠. 그런데 이 공부하는 사람은 한 술 더 떠서 공중에서 싸운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커버할 수 있고 양장시킬 수 있는 대인이 되시라 이겁니다. 이파리 하나 가지고도 군사를 몇백 명이라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 무엇이 언짢고 귀찮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인간 살이를 어렵게만 생각해서 그러는데, 고통을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주인공으로부터 나를 형성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니 부와 자카 하다가 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마음은 하나인

데 마음내는 건 수억만 가지입니다. 수억만 가지가 한마음으로 들고, 한마음에서 수억만 가지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묘법이고 광대무변한 자신의 보배를 자신들이 가졌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수억만 명을 만들어서, 이 우주를 덮게끔 할 수도 있어. 지금 모습 없는 모습들이 각 혹성에서도 바라보고 있으니까! 모습 있는 생명들도 많지만, 모습 없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아야. 그것이 다 천구라든 무서울 게 뭐 있고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도 사람을 처음 봐서 아무것도 모를 때도 사람 마음을 거기 봤을 때에는 그 소가 '아! 이 마음이 이러니까...' 하고 그냥 마음을 따라서 같이 알게 돼요.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길을 따라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위대하죠. 사람은 전체를 알고 있는데, 짐승은 부분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알고 있는 거 그것뿐이거든요.

그러니 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 공산주의 나라가 독재로 다스려서 이익이 뭐

있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한다면, 또 모든 에너지들 같이 이렇게 평등하게 만든다면, 어떤 문제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3, 4년 전 얘기일 겁니다. 나는 중공이든지 소련이든지 어디든지, 민주화로 좀 이렇게 같이, 몸을 좀 갖다 섞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도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섞지 않는다면 살기가 희박하다는 문제입니다. 전부 개발하기도 희박하고, 또 불국토를 가져오는 것도 희박하고, 또 앞으로 연구하는 데도 큰 절망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생명체들이 잘 살 수도 없겠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야, 쉼물 밑물이 같이 혼합을 해야 살 수 있는 기대를 품을 수 있고 또 지혜가 나오고 물리가 터지고, 불국토도 이룰 수 있는 거죠. 과학도 더 나아가서 연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원력이 아니라, 서로 돌이 아니게 교류를 맺게 하고 인연을 맺어 주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나가는 이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얘깁니다. 원력이 있다고 해서 어느 나라를 죽이고, 어느 나라를 살리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기 앉은 자리 딱 지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누구나가 자기네 집 지키지 않는 사람 여기에 한 번이나 계산 거 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다니다가도 자기네 집으로 들어갑니다. 모두, 거기는 꼭 지키더군요. 어디 나가서 여편에 가 자도 내 집이 있다는 건 꼭 지키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공부, 이러한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식들을 낳고 키워도 그 애가 스스로 밝은 길을 걷도록 가르칠 때, 말로 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전파통이 있고 그에 전파통이 있는 이상, 내가 그 애 변호를 자식이라고 알고 있는 이상, 그거는 역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돌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뿌리에서 많은 에너지들 다 넣어도 놓는 사이가 없이 스스로서 밝아서 스스로서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누가 일부터 그 손을 끌고, 욕을 하고 때리고 그래서 겁니까?

각본대로 여러번 사시죠? 여러분이 그 게임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

22면으로 계속

놓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납니다!

사는 자체가 다 바로

근본에서 하는 거라고 믿고 놓아야 합니다

기했지만 이 몸뚱이 속에 생명들은 지금 내가 저기 갔는지 여기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알고 있나.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뱃속의 오장육부 세포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묘법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내가 도둑질을 했어도 누가 알겠느냐 하겠지만 이 뱃속의 생명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죄 알고 있으니, 우주간 법제에 다 이걸 그냥 파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 거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을 하더라도 '거짓 아닌 거짓을 해라!'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남을 위한 거짓이라면, 부모를 위한 거짓이라면, 자식을 위한 거짓이라면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더 이것을 잘 음미해 본다면 이 보이지 않는 데에 진출하는 이런 마음은 부처님 법의 경을 읽고 또 이론으로 알고 또 물리를 안다고 해서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아무리 잘 안다고 하더라도 한번 내가 집어먹을 줄 모른다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한번 집어먹을 줄 알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6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1학기 범패·소리과정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제, 천도제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대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 법. 사십구제 · 천도제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지도

2학기 작법·무용과정

나비춤, 사방요신, 다계작법, 도량계작법
바라춤 - 요점바라, 관음계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교수진

일초스님 직강 / 강사 : 원경스님 · 지오스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나호 범패 · 작법부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제 보유자

■ 개강일시 : 2007년 3월 6일(화요일) 오후 2시

(오리엔테이션 및 학사일정 설명)

■ 모집인원 : 000명 (FAX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화, 목(주 2회)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07년 1월 ~ 2007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교는 초종파 불교종합예술대학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교의 성적 우수자는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불교의식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제 보존회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전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한글인터넷 : www.수륙제 www.범패 / 삼계종 http://www.samgyeojong.org / 한글인터넷 : 삼계종